

# 불교-기독교 비교서 종교 상호이해 '도움'

### 김대통령 국군교회예배 파문 비교종교서 '눈길'

최근 김영삼대통령의 국군교회당 예배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갈등 조짐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저작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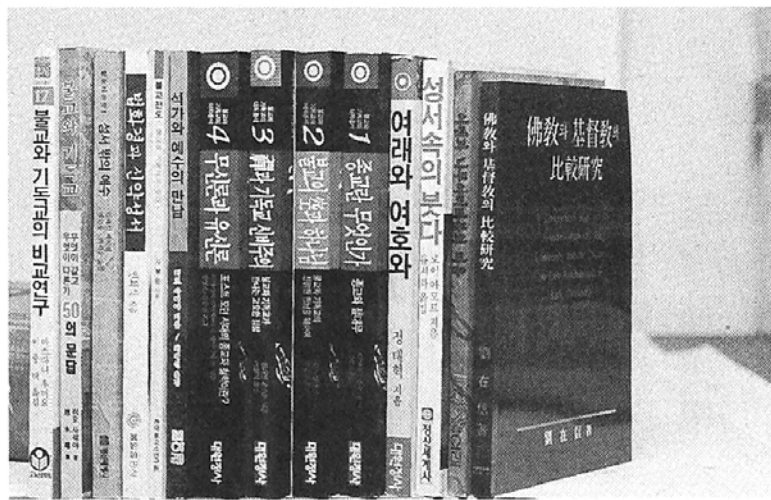
20여종 이상에 이른다. 1938년 만상회(甘露會)가 펴낸 <불교와 예수교>(이교경 편), 1955년 영남문화회가 펴낸 <예수교와 불교>(서경보 지음) 등을 시작으로 80년대 이후 꾸준히 나오고

성이 크다는 생각을 가져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기독교측 입장에서 나온 도서(약 15권) 및 논문(약 12권)보다 불교측에서 나온 도서(약 35권)가 2배 이상

## 교리분석·상관관계 학문적 접근 "상대 결점파악 우월성 논증" 부정시각도

있는 불교-기독교 비교서적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적 관용성과 비교종교학의 국내 보급으로 인한 학문적 필요성, 이로 인한 종교다원주의의 확산과 기독교측의 이교도 선교 방편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같은 비교도서들은 다소 부정적인 요인을 갖지만 두 종교간의 상호이해를 통한 종교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한 불교측에서는 두 종교가 비교될 경우 불교교리의 수습함이 일반독자들에게 인지될 가능

많은 것으로도 확인이 된다. 물론 불교측 입장에서 나온 도서의 절반이상은 일본·유학서적의 번역본이다. 특히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를 중심으로 한 일본 교토(京大)학파의 불교종교학 동서철학 또는 비교종교학 학문적 접근은 이같은 기독교와의 대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신평과 유신평>의 역자인 정병조교수(동국대)는 이같은



◇대통령의 종교가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기독교 비교서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사진은 일본 교토학파의 비교종교학 번역판을 중심으로 한 관련 저작들.

지난해 말 불일출판사와 정신문화사(법화경과 신약성서(민회식 지음) 개정판과 <기독교와 신>(이영명 옮김)을 각각 출간한데 이어, 대원정사는 이달내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총서' 제 5, 6, 7권으로 <선과 현대철학> <선과 신학> <선과 종교철학>을 동시에 발간한다. 지난 93년부터 '불교와 기독교 대화총서' 시리즈로 <종교란 무엇인가>(정병조 옮김) <불교의 후와 허남승>(김승철 옮김) <불교와 기독교 신비주의>(이원석 옮김) <부신평과 유신평>(정병조·김승철 공역)을 출간한 대원정사는 이미 87년 <여래와 여호> <정대역 지음>을 시작으로 출판물 통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불교를 더했었다. 대원정사의 대화총서를 포함, 현재까지 나온 '불교-기독교 비교' 도서는 50여종, 논문은

31년 93년부터 '불교와 기독교 대화총서' 시리즈로 <종교란 무엇인가>(정병조 옮김) <불교의 후와 허남승>(김승철 옮김) <불교와 기독교 신비주의>(이원석 옮김) <부신평과 유신평>(정병조·김승철 공역)을 출간한 대원정사는 이미 87년 <여래와 여호> <정대역 지음>을 시작으로 출판물 통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불교를 더했었다. 대원정사의 대화총서를 포함, 현재까지 나온 '불교-기독교 비교' 도서는 50여종, 논문은

### 새로 나온 책

▲과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윤주익 지음)=많은 종교들이 그 가르침과 과학과의 상극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반면, 불교는 과학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자연과 학을 전공한 이학박사 윤주익교수(미 코넬대 객원교수)의 눈에 비친 불교의 세계. (민양, 5천5백원)

▲무비스님과 함께 하는 불교공부(무비스님 지음)=80권본(화엄경)을 완역한 무비스님이 믿음(信) 이해(解) 실천(行) 상취(證)의 전통적 수행교육방법을 채택해서 쓴 신행위주의 입문서. (민족사, 8천원)

▲지장경(해공스님 지음)=지장기도 도량인 보현산 효호사 주지스님의 <지장경> 강해 실법. 총13품인 한 품마다 원문과 역문, 실법으로 구성했으며, 비유설화, 신앙수기 등을 곁들였다. (솔바람, 5천5백원)

▲동양사상과 환경문제(불교환경교육원 역음)=불교 노장철학 등 동양의 생태적 사고와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소개했다. (모색, 7천2백원)

▲종교철학의 체계적 이해(허재운 옮김)=종교는 이론이 아닌 삶이기에, 생동하는 삶이 이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질 때 그것의 신선함과 근원성, 자체적 확실성을 잃기 쉽다. 현상학과 가치철학의 입장에서 나온 종교철학서. (서광사, 2만원)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에 대해 △상대방의 결점을 파악해 우월성을 논증하려는 호교(敎)논리와 △현상적 대비를 통한 자신의 입장 강변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동서사상의 활발한 교류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감안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재경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열악한 현실의 반증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태초月珠 編譯/크라운 양장/30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 광개토대왕비 초기탁본집' 발간

동대출판부 미공개자료 4종...비문 재해석

중국 출판부는 최근 임기중 동국대교수(국문학)가 지난 93년 중국 북경대도서관 및 북경도서관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광개토대왕비문 원석탁본(原石拓本) 4종과 임교수의 새로운 해석을 함께 실은 <광개토대왕비 원석 초기탁본집>을 발간했다. 광개토대왕비 탁본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책자는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원석 초기탁본' 4종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임교수는 비문글자 1천7백75자 가운데 관련학자들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1백77글자를 초기탁본 비교대조를 통해 새로 읽어냈으며, 비문중 일본학자들이 '신묘년에 왜(倭)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한 부분을 '왜가 신묘년에 와서 사물(현재 경남사천)을 건넜기 때문에 고구려가 왜를 쳐부수었다'고 새롭게 해석하는 등 많은 새 해석을 시도했다.

'한다-한국어 사전' 출간  
한국외국어대 출판부는 국내 최초로 <한다-한국어 사전>을 펴냈다. 이 사전은 한국의대가 80년대부터 기획한 특수언어사전 편찬사업 중 아홉번째로 완성된 것이다. 인도와 네팔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용되는 현대 한다(인도어) 표제어와 용례 6만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출판산업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클럽제도와 우편판매제도 등을 통한 유통채널의 다변화와 도서가격의 다양화, 공정한 도서선정제도의 확립, 도서관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연구소 주최의 제4회 출판포럼에서 이중한 서울신문



제4회 출판포럼 이중한씨 주제 발표

## "북클럽제로 출판위기 극복" 우편판매제 활성화 '우편로 특별법' 제안

는설위원회는 '한국 출판산업의 총체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출판불황은 출판산업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복합불황이다"고 전제하고, 뉴미디어시대를 대비한 출판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 유통채널의 다변화 대책으로는 △북클럽제도의 시도와 △독자 수요별 소규모 매점의 창출(수퍼마켓·공무원 연금매장·농협 등 공공기관의 서점코너 설치)과 △소형서점의 지역별 전문화·특성화, △우편판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우편로 특별법' 등이 제시됐다.

###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립
2	그 마음을 버려라	김 재 응	용 화
3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4	신동	해 운	청 마
5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6	버리고 떠나기	법 정	샘 터
7	예불하는 마음에 지비	권 영 한	진원문화사
8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침 하
9	방한안사	김 오 성	민 족 사
10	죽음의 길을 어떻게 할 대려볼까	전 이 창	숨 리

구입문의: (02)737-0695

## 명사추천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불자로서 감명깊게 읽은 문학작품을 들라면 나는 주저없이 최인훈의 희곡소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를 추천한다. 소설가 최인훈은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한국인의 정신적인 구원의 철학은 불교라고 생각한다. 그는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불교부에는 없지 않겠나? 이천년 동안 줄곧 내려온 커다란 줄기야. 비록 지금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렇기 않아. 돌과구만 생기면 언제든 짙어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지력이다. 불교가 보잘 것 없는 종교라면 덮어놓고 우길 수가 없겠지만 비할 수 있는 우리들 깊은 진리인데야 결론은 확실하지 않아? 이천년의 투쟁을 겪을 수는 있나?... 기독교가 비록 서양에서 시작하지 않았지만

등을 삼습니다." 1969년에 발표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삼국사기 열전의 '온달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소설과 희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설화와 사회(史話)를 중요한 소재로 하고 현실과 꿈을 교묘히 엮어서 현재와 전세의 '인연'과 '윤회'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골육상쟁을 피해서 공중을 떠난 경강공주가 스님을 따라 절로 가다가 온달의 집에



김문숙 (부산불교문인협회장)

## 한국인 정신구원처는 불교 '인연' '윤회' 보살의 모습 담아

만 이천년 동안에 그들의 것이 되었듯이 불교도 우리들의 것이야. 아니 우리야. 바로 우리야." 단 최인훈이 구원으로 생각하는 불교는 작품의 불교가 아니고 부처님 키만큼 개혁을 거친 불교이기를 바라고 있다. 또 폐쇄사회에서 개인의 집착과 미망을 거부하는 공간의 용맹스런 금강역사였던 불교도는 개방사회에서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가장 집착없는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보살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외친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를 다시 일으키십시오. 저 위대한 서양의 종교개혁처럼 한국 불교도 개혁을 마련하십시오. 불교로서 우리의 마음의 기

##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金日河(홍명) 스님 설법테이프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테이프 ①②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전통호흡법을 소개하고 호흡과 기(氣)와 마음, 선정의 관계를 밝혔으며 전통적인 단전호흡, 기(氣)수행원리를 밝혔다. 테이프 ③은 전국의 초능력자 수십명을 취재 보도한 바 있는 영남일보 변성석 기자와 대담한 취재 형식의 내용이다. 테이프 ④는 법문을 듣는 수행 청중과 토론한 내용이다.

「전통적인 불교수행법은 어떤 것인가?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기(氣)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가?」

전국 불교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 파인드 곧 나옵니다.

대중불교음반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142-1 (053) 755-9537, 742-4017

## 大韓國人 安重根 (義士)

목동 안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리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을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고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없리.....」 (安重根 어머니가 심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053) 852-0803, 藥師庵 一如

## 부인회·노인대학교·어린이집

포교에 뜻있는 분

포교의 서원을 세워 어린이법회, 종교동학생회, 청년회, 부인회,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실 분에게 땅값만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집(유치원)까지 운영하실 분에게는 평 300만원 수준에서 9억 까지 구성심사 은행융자로 년 8% 15년 상환 운영 기회 있음

전일 주관법사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후계자를 구합니다.

■대지·건물: 2층 법당 22평, 요사채 28평, 사무실 6평 = 총대지 52평 (전통 사찰양식 집중식 건물, 시설 일체 준비됨)

■문의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T. (02) 802-9239 F. (02) 894-9239